

강진군,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 가는 길’ 동행



동행 매니저가 진료 접수를 마친 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4월부터 ‘병원동행서비스’ 운영...매월 80~100명 이용
이용자 70% 무료...“통합돌봄에 필수·지원 기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홀로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14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강진양로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병원동행서비스는 전남 동행 매니저가

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2만7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이용료의 20%인 시간당 5400원만 부담하며, 일반 이용자는 시간당 2만7000원을 부담한다. 현재 이용자의 약 70%가 무료 대상자로,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동행 매니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3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 돌봄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김수진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병원동행서비스는 통합돌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강진군은 2025년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강진군 군민행복과 통합돌봄팀(061-430-5997), 강진양로원(061-433-5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목포,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대응 보건소 특별방역·자원순환과 환경정비·동별 제초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만호동 등 건물 상가 밀집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건물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력과 청소차량을 투입해 물에 젖은 박스 등 침수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하고, 피해 상인들의 복구를 돕는 대민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피해 현장에 참여해 침수 폐기물 정리와 주변 환경정비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도 강화했다. 보건소는 집중호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위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자원순환과는 도로변에 발생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초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회복에 힘을 쏟았다.

목포=이준기 기자 leek2123@

해남, 주민참여형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 ‘온 힘’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운영...고독·고립 위험가구 안부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복지사각지대와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보다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보안관 시시콜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동네 복지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이 복지보안관으로 참여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연결하는 주민참여형 복지안전망 사업이다. 특히 평상시뿐만 아니라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 군과 읍·면 복지팀, 복지보안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안부와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비상 안부 확인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군은 지난달 복지보안관 296명을 선정하고, 고독·고립 위험가구 564가의 안부를 살피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안면 탐동마을에서 복지보안관으로 활동 중인 김재용 이장은 폭염 기간 장기요양서비스를 거부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을 매일 찾아 안부를 살피고 있다. 김 이장은 “매일 얼굴을 보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잘 살피고 챙겨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안부확인이 필요한 주민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읍·면 주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해당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 복지보안관과 연계해 안부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복지보안관 활동을 통해 행정기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웃의 생활 변화를 가까이 주민이 먼저 발견하고 연결하는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무안, 청렴 취약분야 개선 ‘총력’

반부패 청렴 TF팀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반부패 청렴 TF팀’ 회의를 열고, 청렴 취약분야 개선과 202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4개 반 15개 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한 청렴시책과 분야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반부패 청렴 TF팀은 청렴 기획·조정반, 내부청렴 추진반, 외부청렴 추진반 I(계약·세정·보조금), 외부청렴 추진반 II(인허가·공사)로 구성돼 있으며, 청렴도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부당지시, 갑질 행위, 소극행정 등 주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계약·보조금·인허가·공사 등 군민과 접점이 많은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분야별 추진상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반부패 청렴 TF팀’ 회의를 열고, 청렴 취약분야 개선과 202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청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청렴 취약분야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중 무안군 부군수는 “청렴은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의 기본이다”

며 “취약분야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준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쳐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영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정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들다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이달의 이슈



커버스토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매카 조성